보거든 즉시 도망가라

(마24:15~28)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보거든 즉시 도망가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보거든 즉시 도망가라.

여러분,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늘 우리의 관심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무엇이며 거룩한 곳에 서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 왕이 유대를 정복한 뒤에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돼지피를 성전에 바른 역사적인 그런 일을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미래를 얘기하시는데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성과 성전이 망하고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사건은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일어날 그 심판 때의 일의 전조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는 이런 현상은 예언된 대로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두 번 일어났고, 앞으로 마지막 종말 때에 한 번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잘못 된 이해라는 거예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걸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면, 다니엘의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건에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하고 예수님 재림 때의 최후의 심판 때를 겨냥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보이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현상들은 영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매일매일 반복해서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거든'에 액센트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을 계속해서 접하게 될 텐데, 보거든 도망가라는 겁니다, 보거든.
그게 보이거든, 보이거든.
여러분, 조선시대 화가 중에 조선의 반 고흐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화가가 있습니다.
'최북'이라는 분인데, 반 고흐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자기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자기 귀를 자른 이 반 고흐의 행위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반 고흐가 이 세상이 주는 억압, 모든 억압을 벗어나서 그림을 향한 예술을 향한 자유로운 영혼을 불태웠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그 정신세계의 상징으로.

근데 최북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도가가 이 최북에게 그림을 강요하면서, 그 강요된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자 이 사람이 최북의 붓 솜씨를 트집을 잡습니다.
이때 최북이 그림을 강요받으면서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붓 솜씨를 트집잡히느니…' 하고 송곳을 들고 자기 눈을 확 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애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세상의 억압도 굴하지 않고 자유로운 예술을 향한 열정을 불태운 사람으로 '조선의 반 고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작은 산수화가 하나 있는데 '공산무인도'라고 하는 산수화입니다.
이 그림에는 산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초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었습니다.
공산에 물이 흐르는데 꽃이 피어있고 초막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무인도'라고 얘기합니다, '공산무인도'
이 그림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사람이 없다 해서 '공산무인도'라고 이름을 하고, '아! 아름다운 산에 초막이 있고 물은 흐르고 꽃은 피었는데 사람이 없구나!'라고 본다면 이거 잘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최북을 알아야 되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사람이 와서 산수화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최북이 그림을 그려 줬는데, 산수화를 부탁했는데 산만 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볼멘소리를 합니다, '아니 산수화를 그려 달라고 그랬는데 왜 산만 그려놓고 물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 최북이 '이 산이 그려진 그림 바깥이 다 물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최북이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 마음에는 화폭에 산만 그려놓고, 마음속으로는 화폭 바깥에 흐르는 물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무인도를 볼 때, 자! 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있고 초막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없는 산을 그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최북이 그리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 통에, 정치에 관심을 갖고, 대궐에 그리고 술집에 양반들이 모여서, 기생집에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 세속의 관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온통 이 아름다운 자연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세상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을 두고 모여서 북적대고 있는 그 모양을 오히려 거꾸로 그려낸 거라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림 화폭에 산만 담아놓고 화폭 바깥에 물이 가득하다고 보는 이 최북을 알아야, 공산무인도가 사람이 하나 없는 빈 산을 그린 최북의 그림이 실제로는 사람들이 어디에 꼬여 있고 무슨 관심을 갖고 사느냐라는 것을 그리려 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산을 그린 거로 보이는 거예요.
최북의 이러한 그림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지요.

이처럼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공산무인도를 보고 사람이 없는 산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북적대고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도 안하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종말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을 일상화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일상화하라는 거예요.
쭉~ 마태복음에 흐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 마태복음 이야기 속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 객관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내부적인 종말로 내 개인적인 종말로 갖고 와서, 종말적으로 살라는 얘깁니다.
마음은 거룩한 의도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소와 관계된 사람,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드리는 제물 이게 다 거룩해 집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 안에 어떻게 무엇인가 누군가를 들여놓습니까? 좋아함을 통하여.
마음이 좋아한다는 것은, 마음 안에 들여놓는다는 얘깁니다.
근데 거룩한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좋아서 하나님만이 들어와야 될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게 바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잘해보고 싶다, 그 사업을 좋아하고 사업에서 남길 이익을 좋아한다, 이게 멸망의 가증한 것이 마음에 들어 선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 볼 수 있어요, 사업이 왜 가증한 거냐?, 이게 혐오스러운 거냐?
사업 그 자체는 가증스러운 게 아닙니다, 혐오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들어올 때, 가증한 것이 되고 혐오스러운 것이 됩니다.
시누이 입장에서 시집온 올케가 너무너무 미워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같고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 올케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시누이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친정에 가면 그렇게 귀한 딸입니다.
마찬가지에요, 어디에 놓여 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혐오스럽다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 반듯하게 생긴 고풍스러운 안틱 풍의 침대 위에,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는 침대 위에 엄마가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김치를 그 침대에다 떨어뜨렸다!
김치도 가증스럽지 않고 침대도 가증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 김치가 떨어지면 그 자체가 혐오스러운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멸망의 가증한 것,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에요.
왜 황폐케 합니까?

하나님 말고 사람이 다른 것을 좋아해서 마음 안에 좋아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좋아하는 그것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배반을 당하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고갈되게 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으로 지속되면 되는데 좋아했다 이혼하고, 좋아했다 결별하고, 좋아했다 싸웁니다.
좋아하는 사업이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지를 않습니다, 좋아하는 돈이 나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도망을 갑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황폐케 돼버리고 맙니다, 내 인생이 황폐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을 마음이 좋아하면서 마음 안에 그것들이 들어와 서 있는 것이 바로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인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하십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보거든! 보거든!
이게 보이면, 이게 바로 죽을 일이고, 이게 바로 내 인생을 황폐케 하는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보이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하냐!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마음에 딱 떠오르자마자.
이것이 바로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얼른 그 마음에서 하나님 이외에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되 어떻게 도망가느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서 집 안에서 쓸 물건을 가져가지 말고 도망가라, 밭을 가는 자는 겉옷을 벗어놓고, 이랑을 갈고 저쪽까지 갔다가 이게 보이거든 그 즉시 겉옷을 가지러 돌아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서 도망가라는 얘깁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붕이 평평하게 민자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날이 다가오면, 잠깐 내려와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가장 필요한 요긴한 물건 하나 갖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은 어떻게 도망가느냐?
아예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계단이 옆으로 쭉 나있으니까, 내려와서 입구로 들어가서 물건하나 집어 갖고 나오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유대 사람들의 밭이 길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러나 쟁기 들고 쭉~ 갈고 나갔다가 겉옷을 벗어둔 지점까지 돌아왔다 가는데 뛰어서 가면 1분도 안 걸릴 텐데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겉옷 가지러 가지 말고 곧 바로 나가라는 얘깁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자마자,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을 갖지 말고, 터럭만큼도 그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즉각적으로 도망가라는 얘깁니다, 마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캘빈과 루터 종교개혁 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주검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주검을 말한다, 그리고 독수리라는 것은 택한 사람들을 말한다. 택한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려들 것이다'

언제? 언제 그리로 갑니까?
보거든! 가는 거예요.
뭘 보거든? 내 마음에 거룩한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좋아해서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야 될 내 마음 안에, 이 세상의 그 누구든 그것이 아내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부모건 그 자매건 형제건 그 누구든, 좋아해서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보이거든, 어떻게 보여요?
이것이 바로 망할 일이라는 것이 보이거든, 이것이 바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거든, 깨달아지거든 곧바로 도망가라는 얘깁니다.

어디로? 주님의 십자가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예수님이 죽어계신 그곳으로 도망가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에요.
내 마음이 좋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이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될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들어와 굳건하게 자리 잡으려고 할 때에, 이것이 망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 얼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이 도망가서 내가 좋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바로 살길이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이세상의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망하는 거라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마음에 가득가득 좋아하면서, 멸망의 가증한 것,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마음 안에 가득가득 담겨진 채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걸 못 보니까, 못 보니까.
이러다보면, 이렇게 깨닫고 보면서 도망가다 보면,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미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망을 가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내가 죽어 버릴 때,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으면 나 개인적으로 이미 종말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주적, 객관적, 역사적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개인적 종말의 의미를 여기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지요.

그 종말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 주검이 있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주님이 죽어계신 십자가에 택한 자들은 올 것이고, 택한 자들이 누구냐?
보는 자들이고, 무엇을 보느냐?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좋아져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는 자들은, 내 마음이 좋아서 붙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조금의 미련도 없이 즉시 거기로부터 도망가서 십자가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두고 도망간 이 세상의 모든 사람관계, 모든 일 관계, 모든 사건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 다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 목숨, 내 인생의 내 기업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목회를 하시던, 의사를 하시던, 뭐 장사를 하시던, 무엇을 하시던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렇게 보거든 즉시 도망갑시다.
그런데 어제 오늘 계속 말하지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이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게 안 보인다, 그러면 도망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보거든 즉시 도망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좋아해서 담게 되는 것이 곧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주검이 있는 십자가로 날마다 순간마다 도망감을 통하여 진정한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뜻을 펼치실 수 있는 자유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